

도교육청, 위기학생 마음건강 지원 총력

심리적 불안 학생 위한 학교자문의사단 ·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 전문가가 학교 방문 · 심리평가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자 학교 자문의사단과, 전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찾아가는 학교자문의사단은 최근 5년간 위기학생 집중학교에 1명씩 배정했다.

학교자문의사단에는 지식의료재단 효병원 윤길상·이종석 과장, 마음사랑병원 강남인 과장, 아이내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기홍 원장, 전

북대병원 전문의 등이 참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1교당 5회 이상 방문해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상담,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자살예방 관련 교육, 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과 연계 또는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로 학업 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자문의사단 운영 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전북

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는 병원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전문기관 연계가 어려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해 임상심리사 2명·사회복지사 2명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는 학부모의 선입견, 인식부족, 보호기능 부재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학생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문의 후 참여 학생 의뢰서를 작성·신청하면, 센터에서 학교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심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신건강 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 적기 개입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병원형 위(Wee)센터를 비롯해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 등으로 위기학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병무청, 폴리텍 찾아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7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를 방문해 학위 및 기능사인성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 전 공공 또는 민간위탁 기술훈련기관에서 기술 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분야 말한다. 지원지역은 당초 고졸이하 학력자나 폴리텍 대학 전문학사 1학기 이상 수료자에서 직업계고 관련 분야 전공자로 확대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소개 및 전공별 지원 가능한 모집특기와 입영가능 시기를 안내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폴리텍대학, 직업계고 및 기술훈련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LX 김정렬 사장 특강... 실습장비 기증 받아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지난 26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초청특강을 진행하고, 실습장비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전주대와 LX는 2014년 협약을 체결, 공간정보 및 지적발전, 대학 인재 육성 등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김정렬 사장이 직접 이 대학 부동산국토정보학과를 방문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LX 디지털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사장은 "LX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정보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전주대와의 다양한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하고,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강에 이어 LX가 전주대에 토



여대, 팬컴퓨터 5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실습장비를 기증했다. 이에 전주대는 LX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인천지역 3개 기관, 청렴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 · 남동구청 · 교육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육청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4개 기관은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반부패·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우수 공공기관 청렴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전북 지역간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반부패·청렴업무 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 ▲반부패·청렴업무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 ▲기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청



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교육공공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예방과 컨설팅 중심의 감사 정책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 1위를 포함 지난 5년간 우수 등급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는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도 향상, 부패취약분야 단계별 청렴 활동 강화, 고객 중심 청렴정책 활성화로 청렴 생태계 조성 등

에 힘을 계속해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교육현장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공체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지속가능한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책 수립 및 추진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해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1등급'

전북대병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 진료환경 우수 입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4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조사 실시를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과 입원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등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며, 전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의 의료서비스와 진료환경 등 통괄적인 의료질 관리가 우수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 받은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서비스와 진료환경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주요 평가지표는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 실시 횟수 ▲개인 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 환자 및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퇴원시 환자경험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5기 입학식이 지난 26일 전주대 J아트홀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벤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벤처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 전주대 LINC+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운영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5기를 맞는 이 과정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대표자 및 유관기관 임원진을 대상으로 경영 리더

십을 함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 습득, 온라인 글로벌 무형상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 간 상생을 위한 소통을 늘리고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교육도 병행된다.

주중 LINC+사업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중소벤처 특화산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